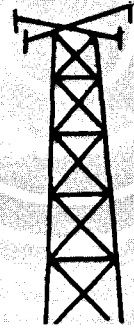


10월의 안테나



盧 永 翰

(대한양계협회편집국장)

양계산업의 기계화 시급

농수산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 1년간 닭 사육 수수가 58%나 증가 하였으며 같은 기간 사육호수는 0.25%밖에 증가하지 않아 사육규모가 점차 대형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계산업이 대규모 집단화 함에 따라 각종 질병으로 인한 손실은 25%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여러가지 사육 환경불량에 의한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최근에는 양계장 관리인의 구인난은 심각하다. 양계산업은 국세청 소득표 준율은 보면 외형액의 12.5%가 소득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수익이 높은 사업인 것 같이 보이나 각종 위험이 따르고 있어 종합 상사들처럼 종업원의 임금을 충분히 올려 주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참고로 78년도 상반기 5인가족기준으로 도시근로자의 1개월간 생계비를 보면 190,687원으로 불의의 사태를 위한 저축 만원을 계산하면 최하 월 2십만원이 되어 성력화를 위해서도 양계산업의 기계화는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 기계전자 부문의 공업이 급속히 발전하여 양계산업의 기계화는 성력화 이외에도 닭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닭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서 새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양계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 월간 양계에서는 그간 여러차례 기계화에 대한 글을

10월의 안테나

가장 45세 가 족
 부 *부 45세
 고교생 1
 중교생 1
 국교생 1

5인가족기준 도시근로자 최저이론생계비

5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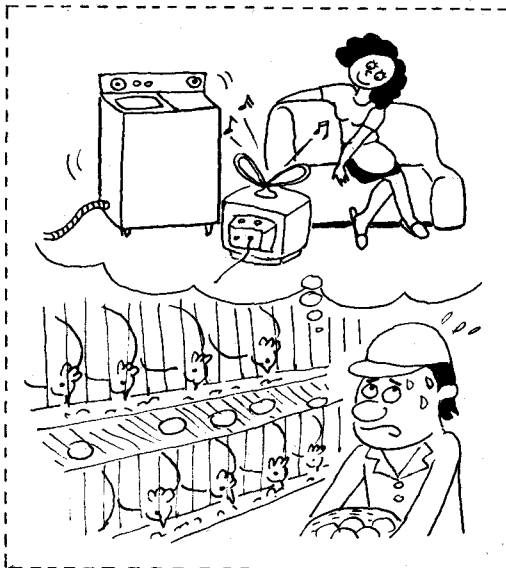
(1977. 12. 20/1978. 6. 30)

	1977. 12. 20(A)		1978. 6. 30(B)		상승율(지수) B/A×100
	금 액	구 성 비	금 액	구 성 비	
소비지출	(150,457)	92.73	(179,461)	94.12	119.28
식료품비	65,972원	40.66	79,412원	41.65	120.38
주거및광열비	14,206	8.76	15,965	8.38	112.39
피부비	15,353	9.77	19,744	10.36	124.55
교통비	6,800	4.19	8,250	4.33	121.33
교육비	24,768	15.27	27,370	14.36	110.51
보건위생비	11,428	7.06	13,410	7.04	117.35
잡비	11,430	7.05	15,310	3.03	113.95
비소비지출	(11,810)	7.28	(11,226)	5.89	95.06
제세공과금	11,810	7.28	11,226	5.89	95.06
합계	162,267	100.000	190,687	100.00	117.52

(노총 조사)

개재 하였고 금년 여름에는 이에 대한 전국순회 강습회도 실시한 바 있다. 값이 적게 들고 손쉬운 부분부터라도 서서히 개선하여 생산비를 절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

는것이 양계산업이 발전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수입쇠고기 의존도는 증가하는데

소득 증대에 따른 육류 수요의 증가는당 위적인 추세이지만 최근 육류의 종류별 소비량을 보면 몇가지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다. 즉 육류소비 패턴이 쇠고기 위주로 그것도 수입 쇠고기에 너무 편중되어 가고 있는 점이다. 현 추세로 나가면 금년도에는 1억\$이상의 고기를 외국에서 수입하

여 먹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쇠고기 수입량이 증가하면 축산진흥기금도 많이 적립 될것이고 이 자금으로 국내 축산발전이 이룩될것을 믿어 의심치는 않으나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지나친 수입의존도는 경계하여야 하겠다. 현재 수입 쇠고기 소비량은 1일 평균 1,300~1,400 두로 서울시의 경우 전체 소비량의 90%에 해당되며 돼지고기도 1일 1,000 여두를 공급하여 전체 소비량의 6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수입의존도는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유통과동태와 같이 어떤 사정으로 쇠고기나 돼지고기 수입이 어려워 질 경우에 국민 식생활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의 육류 소비 구조



를 보더라도 값비싼 쇠고기보다는 단시일 내에 量産할 수있고 사료효율이 좋은 닭고기를 많이 소비하고 있다.

공산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있지만 식량 없이는 살 수 없는 점을 유의하여 안보 차원에서 지나친 수입고기의존 보다는 국내에서 자급이 가능한 닭고기의 소비 확대 방안을 모색 하여야 될것이며 이는 정부당국에만 의존할것이 아니라 양제업체에 종사하는 모든 양계인의 협력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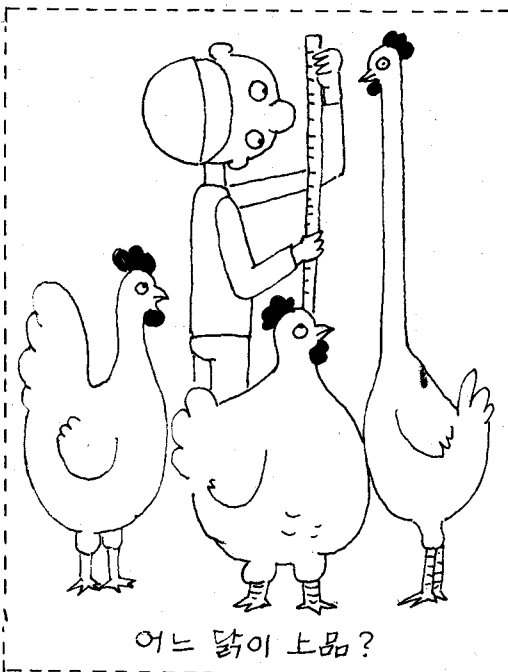
자유경쟁 통해 업체발전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 외국수준으로 발전하려면 이제는 정부의 개입 보다는 자유 경쟁에 의한 길만이 효율적으로기업을 발전 시키는 길이라는 여론이 기업인들 사이에 일고 있으며, 우리 축산업체에서도 배합사료, 종계문제등에 있어 업체가 이제는 크게 발전 되었으므로 품질과 가격의 선의 경쟁으로 업체의 비능률을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양계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식자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이러한 우리 업체의 분위기에 알맞게 전경련 주최로 개최된 1974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하이에크 교수는 강연요지를 통해 오늘날처럼기업이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에 있어서 社會的 富의 증대는 이미 고정된 일을 그저 열심히 수행한다는것 보다는 오히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기회에 민

첩하게 적응하는 데서 더욱 효율적으로 추구될 수 있다.

이러한 끊임없는 변천과 새로운 기회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가능케 하는 기본 여건은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는데 있으며 이같은 적응은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통한 가격기능에 의해서만 이루어 질수 있다. 정부의 개입은 비능률을 조장하고 병폐를 초래하며 자발적인 이윤추구만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회적 부를 증대 시키는 길이다. 당면한 주요과제는 이른바 利他주의와 善한 사람에서 파생되는 비능률을 제거하는 일이다. 오늘의 경제 병폐를 제거하는 유일한 길은 진정한 자유시장 기능에 의한 가격체제로 재정비 하는 길이다 라고 말해 우리에게 크게 감명을 주었다. 우리업체의 의견을 가장 잘 정리 하여 표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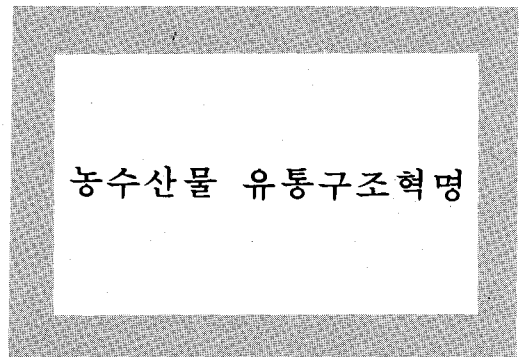
우리가 지금 도시 생활을 하다 지칠 때는



고향의 초가삼간과 시골의 따뜻한 인정이 그림듯이 15년전 부업양계 형태때의 양계인의 생리를 그리워 하며 그때의 서로 협조하고 도와 주던 인정에 집착하는 양계인을 많이 보게된다. 새로운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과거의 영화만을 추억으로 지내는 양계인 ...

이들 대부분이 60년대 후반 외국계의 도입과 70년대 초의 외국계 수입금지조치 등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적응치 못해 어제의 일류업체가 오늘은 3류로 어제의 3류업체가 오늘은 일류 업체로 변모 하고 있다.

다시 재개된 종계의 수입, 79년도 부터 시행될 도계 유통, 국민의 식생활구조의 급격한 변화, 정부의 농축 수산물 유통구조의 개혁 등 변모하는 시장정보에 어두워 나오되지 않는 지혜와 끊임없는 연구 노력으로 슬기를 길러 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 불황이 오면 정부나 협회에서 처리해 주겠지하는 안일한 생각과, 정부의 총물량 조정 정책으로 품질개선보다 경제외적인 문제에 집착하기에는 이제는 양계업체가 너무 발전한 현실을 직시해야 될것이다. 하면 되는 시대는 가고 잘 하면 되는 시대가 오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통구조가 가장 원시적이고 중

간 상인의 마진이 높은 농수산물이 가격 안정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며 현재 농수산물이 전체 물가 상승율을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농수산물 가격 안정사업단(농안 사업단)을 농어촌 개발 공사에 두고 농협에도 관계 부서가 신설 되었음은 이미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축산진흥회가 농협과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양계산물의 유통에 대하여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 같다. 양계산물의 유통경로를 보면 그림 1, 2, 3와 같다. 양계산물의 유통단계별 마진은 표 1, 2와 같다.

그림2 雞卵의 流通經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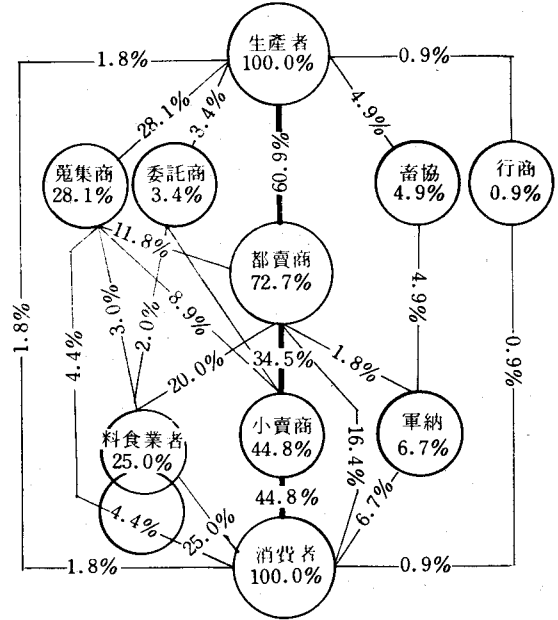


그림1. 肉鷄의 流通經路 및 流通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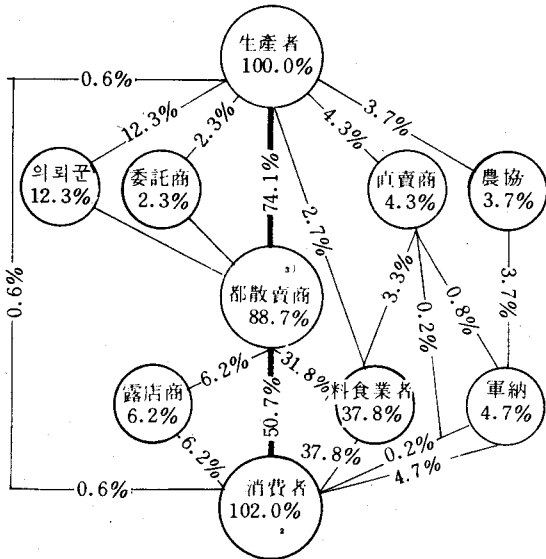


그림2. 老鷄의 流通經路 및 流通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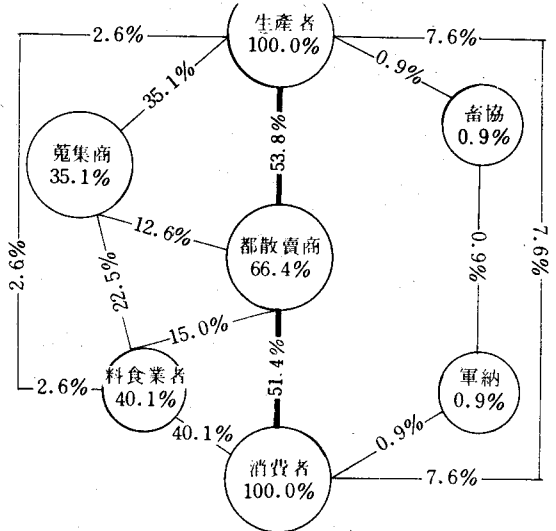


表 1 Boriler의 流通段階別마진 (單位: 生体 kg當 元)

流通段階	販賣價格	流 通 마-진			마-진率 %
		流通費用	中間利得	總-마진	
生産者	222.91	—	—	—	—
의뢰꾼 都散賣	241.05	7.62 (42.0)	10.52 (58.0)	18.14 (100.0)	7.5
商	305.30	34.08 (54.0)	29.07 (46.0)	63.15 (100.0)	20.7
計		41.70 (51.3)	39.59 (48.7)	81.29 (100.0)	36.5

- 1) 消費者價-生産者價格÷100
- 2) 肉鷄의 경우 都賣商과 小賣商의 機能이 分化되지 않고 混合되어 있음.

表 2 鷄卵의 流通段階別마진 (單位: 中卵個當 元)

流通段階	販賣價格	流 通 마-진			마-진率 %
		流通費用	中間利得	總-마진	
生産者	11.20	—	—	—	—
蒐集商	11.60	0.17 (42.5)	0.23 (57.5)	0.40 (100.0)	3.4
都賣商	12.70	0.60 (54.5)	0.50 (45.5)	1.10 (100.0)	8.7
小賣商	14.50	0.99 (55.0)	0.81 (45.0)	1.80 (100.0)	12.4
計		1.76 (53.3)	1.54 (46.7)	3.30 (100.0)	29.5



양계산물의 경우 마케팅서비스를 통한 상품의 효용을 증가함이 없이 중간상인의 순마진만을 증가시켜 유통마진을 크게 하는것이 전문가에 의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계란의 경우 서울 경기지구 양계협동 조합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화장품이나 유산균음료처럼 가정 방문판매를 시도하고 있고 닭고기의 경우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해 생계 유통에서 도계 유통으로, 서울의 경우 79년2월 1일부터 시행코저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계 조합의 경우 창립총회를 끝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도계 유통도 76년8.3 사태 때 보다도 현 서울시의 경우 소비량이 2배이상 증가하고 있어 전문가는 1일 10만수 이상 처리 할수있는 도계장을 2-3개 서울 근교에 설치 할것을 권하고 있어 정부의 과감한 정책 및 자금 지원이 어느 만큼 실현 되느냐에 양계산물 유통개혁의 성패가 결정 될것 같다.

지금까지 시도되어보지 못했던 농축산물 유통구조가 개선 되어 우리 양계인도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정기국회에서 세율 조정 작업

보도에 의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양계산업과 관계가 있는 세율 조정 작업이 이루어 질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는 조세감면 규제법에의해 감면 혜택 받는것을 법인체와 개인업체에 차등을 두는것이고.

둘째는 정부의 수입자유화 정책에 따라 관세율을 대폭 인하 조정하여 현행관세율 평균 36%에서 25%로 인하하는 동시에 물가의 자동조절을 위해 物價連動關稅 季節關稅 割當關稅를 신설한다는 것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정기국회에서 심의과정에 일반에 알려 지겠으나 차제에 우리가 바라는 것 몇가지를 이번 기회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현 대부분의 양계장이 개인기업으로 되어 있고 법인 구성을 한것은 거의 없으며 양계업에 대한 부기도 구구각각으로 이에 대한 지도계몽도 충분치 못하고 있어 법인체와 개인업체에 세제상 큰차이를 둘경우 현재 여건으로 보아 축산업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당초 정부가 축산업을 장려하려던 목적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어려운 것이고 관세

법 개정에서 있어서는 현재 종축은 무세로 되어 있으나 각종 양계 기구 설비는 세율이 높아 양계산업의 기계화가 시급한 현재 양계 산업의 현대화가 늦어지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국내 양계기구 제작은 Cage제작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계란선별기등도 제작되고는 있으나 널리 보급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각종 계사의 환경조절장치 제분, 급이, 급수시설등도 중요하며 사료성분 분석이나 일반양계장에서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배합분쇄기 펠렛제조기등과 가금처리장 시설 등 관련 분야의 과학화를 위한 관세의 면세 조치와 이 분야의 기술도입조건 완화와 외국 유명 메이커 상표사용을 가능케 하여 국내 양계기계 기구 산업을 발전시켜 한국 양계의 병폐인 시설의 과학화 현대화가 이루어져 획기적인 생산성 제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생산비 절감으로 소비자 보호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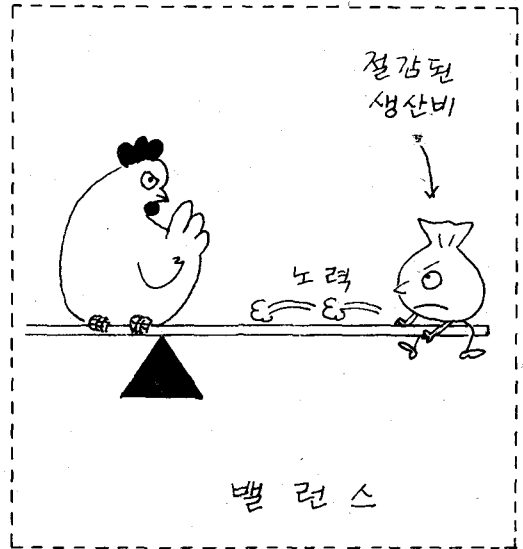
요즘 양계업자에 계란이나 닭고기의 생산비가 얼마인가 물어보면 너무도 구구하고 그 폭이 크다. 예로 부로일러의 경우 생체 1kg 생산하는데 생산비가 500원에서부터 600원까지 20%이상의 큰 차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가격의 진폭이 커서로 공존 하는데 문제가 있다. 60년대말 근대양계로 발전하기 시작할때의 생산기술 습득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던 열의와 정성이 이제는 생산기술은 선진외국에도달하여 더 배울것이 없는것으로 착각하는 업자가 많아 진것 같다.

양계강습회 수강인원이 과거의 10분의 1도 안되고 양계업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기술부족을 느끼는 것은 3%에도 달하지 못하고 있는것등이 잘 말해주고 있다.

어떤 기술자가 새로운 기술이 영구적이라고 생각하는것 처럼 잘못은 없다는 말과 같이 변천하는 새로운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생산성을 높이는데 최대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몇년간 육류 소비의 급격한 증가로 비교적 안정하게 양계업을 영위하였고 사업규모의 확장이 수익과 직결 된다는 식의 잘못된 사고 방식을 갖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것은 업계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는것 중의 하나이다.

현재와 같이 수입 쇠고기가 값싸게 판매되므로서 닭고기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도 생산비를 절감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많은 연구노력을 하여야 할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생산비 구성 내역을 비교하여도 우리가 노력에 따라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겠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 정부는 총 물량의 조절정책에서 시장 경제를 통한 가격경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개발할수 있는 자극을 주어야 될것이다.

경쟁이 없는 업계는 생산비의 증가와 안일과 타성으로 침체되어 발전할 수 없기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육용계 출하시 시장 가격에 요행을걸고 양계를 하지않고 생산비 절감 경쟁에 승리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수있도록 년중 가격진폭을 줄이고 계약생산 체계등 모든 여건을 구비하여 안정된 양계를 이룩해가야 될것이다.